NEW CITY GOOD NEWS LETTER

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 따르는 성도



미소로 버무리고 사랑으로 차려낸 우리 교회의 행복한 식탁!

(정성의 손길_손이숙, 김현지)

누구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환영합니다.

PASTOR'S COLUMN

펼쳐 놓은 편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치면 기도가 되고, 소유를 사람 앞에 펼치면 교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도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온 검사 결과지, 답이 없는 이력서,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통장, 자녀의 성적표, 새벽에 온 문자 한 통. 그런 편지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편지가 시야를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전 701년, 히스기야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견고한 성 마흔여섯 개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때였습니다. "네가 의뢰하는 네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왕하 19:10). 그런데 그는 그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 놓았습니다"(19:14). 현실을 부정하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그 편지는 사형 선고문이지만, 여호와 앞에 펴 놓으면 기도 제목이 됩니다. 편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는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살려주세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눈이 편지에서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하였으므로 내가 들었노라"(19:20). 하나님은 하룻밤에 제국의 군대를 꺾으셨습니다.

얼마 후 사망 선고 앞에서 그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20:5). 하나님은 잘 정돈된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으로 기도해도 안전합니다.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과 응답되지 않은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다른 것이 최상이어서 주시는 것입니다(롬 8:28).

그런데 위기가 지나가고 부와 영광이 지극할 때, 바벨론에서 아첨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는 보물고의 모든 것을 사절단 앞에 펼쳐 자랑했고, 그것은 훗날 바벨론의 약탈 목록이 되었습니다(20:13-17).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치면 기도가 되고, 소유를 사람 앞에 펼치면 교만이 됩니다. 평안과 성공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 29:14).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기록입니다. 기도의 참된 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아첨 앞에서도, 협박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만 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롬 8:34). 기도란, 인생의 평가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쳐놓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활짝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편지만 보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교만해집니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목사 드림

SUNDAY WORSHIP

주일 예배 순서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위대하신 주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열왕기하 19:10 - 19	이시원/다함께 기립
설 교	펼쳐 놓은 편지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찬송과 기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조모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예배가 처음이신가요?

- 순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화면과 이 순서지를 따라 편안히 함께해 주세요.
- 헌금은 교인들의 감사 표현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마음의 부담 없이 지나셔도 됩니다.
- 예배 후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꼭 함께 드시고 가세요.

SCRIPTURE OF THE DAY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이시원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왕기하 19:10 - 19 (우리말성경)

열왕기하 19장
10.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믿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앗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해도 속지 마라.
11. 보아라. 너는 앗시리아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구원받겠느냐?
14.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았습니다.
15.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 보소서.
17. 여호와여, 앗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18.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19.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셔서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SERMON OUTLINE

설교 아웃라인 〈펼쳐 놓은 편지〉

승리의 비결은 (①____) 것에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우리 손에도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②____)의 기록입니다.
히스기야의 생애에 세 번의 '펼침'이 나옵니다.

1.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다 (19장) · 위기의 기도

앗수르가 공격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③____)였습니다. ('의뢰하다' 일곱 번, 18:19 이하)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아 보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④____) 놓았습니다 (19:14).
편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는 (⑤____)가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시선의 교환입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 "하나님, 눈을 떠서 보소서."
"네가 (⑥____)하였으므로 내가 들었노라" (19:20). 하룻밤에 185,000명.

2.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았다 (20:1 - 11) · 연약한 기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⑦____)을 보았노라" (20:5)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으로 기도해도 안전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장르는 탄식시)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과 응답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롬 8:28)

3. 보물을 사람 앞에 펼쳤다 (20:12 - 19) · 사라진 기도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도, 기도도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치면 기도가 되고, 소유를 사람 앞에 펼치면 (⑧____)이 됩니다.
형통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상 29:14)

4. 기도의 참된 본은 오직 (⑨____)입니다

광야의 아첨 앞에서도 (마 4:8), 겟세마네의 협박 앞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롬 8:34)

5. 우리의 기도

기도란, 인생의 (⑩____)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으라!

이번 주, 여러분의 편지를, 종이라면 종이째로, 하나님 앞에 펴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눈을 떠서 이것을 보시옵소서."

SMALL GROUP

소그룹 나눔 (예배 후 함께)

1 [5분] 최근에 받은 "편지"(문자, 통지서, 결과지) 중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있다면 가볍게 나눠봅시다.

2 [5분]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받아 보고, 올라가서, 펴 놓았습니다"(19:14). 이 세 동작이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왜 편지를 찢지도, 숨지도 않았을까요?

3 [10분] 히스기야의 기도(19:15 - 19)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천하 만국이 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로 끝납니다. 내 기도의 첫 문장·끝 문장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4 [10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20:5). 말이 되지 못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으로 기도해도 안전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는 이유를 나눠봅시다.

5 [10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과 응답되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최상의 응답이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롬 8:28)

6 [15분] 위기의 기도를 그토록 잘 드리던 히스기야가 번영 앞에서는 기도를 잃었습니다(20:12 - 19).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치면 기도가 되고, 소유를 사람 앞에 펼치면 교만이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은 위기의 편지입니까, 형통의 편지입니까? 각각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7 [15분] 다윗의 형통의 기도(대상 29:14)를 함께 읽읍시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좋은 것들 중,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고 싶은 것을 나눠봅시다.

8 [10분] 이번 주, 나의 "평가표" 하나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펴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서로의 편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의 눈을 열어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해주세요.
- 모든 질문이나 순서를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 어떤 질문에 집중할지 함께 상의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 아웃라인 빈칸 정답 ① 보는 ② 회복 ③ 신뢰 ④ 펴(펼쳐) ⑤ 자리 ⑥ 기도 ⑦ 눈물 ⑧ 교만 ⑨ 예수님 ⑩ 평가표

SERVING TODAY

오늘의 섬김과 봉사

- **예배 안내**
  - 이번 주일: 박민수
  - 다음 주일: 윤재연, 이수민
- **성경봉독**
  - 이번 주일: 이시원
  - 다음 주일: 김하람
- **청소정리**
  - 이번 주일: 휴 조
    (김재강 은원철 박태원 이성은 이위직 허준)
  - 다음 주일: 헤세드 조
    (김성배 김화길 문영식 이정우 박민수)

MISSION

후원 선교사님 근황

- **김남진/김성은 (영국)**
  - 제12차 기도선교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 기도제목
    1) 감사 | 12차 기도선교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쳐진 것에 감사.
    2) 열매 | 잉글랜드/웨일즈에 뿌려진 10개 팀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맺길.
    3) 일꾼 | 본부 및 선교 준비에 이중언어가 가능한 젊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길.

NEWS & EVENTS

교회소식

주일 안내

-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예배 후 점심 함께하는 교제시간이 있습니다.
- 소그룹모임이 예배후에 있습니다.
- 오늘 점심 메뉴는 제육볶음, 아삭이고추, 과일샐러드, 구운 달걀입니다.
- 김영혜 권사님께서 새 밥솥을 기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오목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1인 1스테이크 준비해주십니다.

다가오는 예배 안내

- 7/31 금요일: 깊은 바다 (죄책의 문제, 미가 7:18 - 19)
- 8/2 주일: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대하 33:9 - 13)
- 8/2 주일 오전 10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후 11시 예배

뉴시티 이모저모

- 찬양 악보는 소량 배치합니다. 화면 가사를 보며 가슴을 열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7-8월 일정

- 쪽방촌 도시락 나눔: 7/25 토요일 12시 (용산구 조이어스교회)
- 초등부 여름 나들이: 7/28 화요일 (캐리비안)
- 유치부 물놀이: 8/1 토요일
- 다음세대를 위한 8월 기도회: 8/2 주일 10시
- 찬양팀 음향 조율: 8/2 주일 3시
- 청소년부 수련회: 8/3~4 (월요일~화요일, 교회 및 양화진)
- 제직회 정기 모임: 8/30 주일 1:15

NEXT GENERATION

주일학교 안내

- **유치부**
  - 8월 1일(토) 여름 물놀이를 다녀옵니다.
  - 최은총 전도사, 유은희 집사,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 유치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유치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15-12:00
  - 오늘의 말씀: 남자와 여자
- **초등부**
  - 7월 28일(화) 여름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초등부 여름 나들이는 오종향 목사님, 김현지 사모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 초등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점심시간, 7월 도장 시상식이 있습니다.
- **청소년부**
  - 8월 3일(월)~4일(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4일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합니다.
  - 청소년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로, 외부 브라움홀에서 청소년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 찬양인도: 이세린 · 피아노 연주: 안나현 주보ppt 디자인: 김하람 · 설교: 최은총 전도사
- **함께 섬길 교사를 찾습니다**
  - 주일 오후 1:00-2:30에 새가족 인사, 새신자 성경공부, 청소년 제자훈련, 부부학교, 자녀양육 학교 등 3주·6주 단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소그룹 시간에 유치부·초등 저학년 아이들과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십니다. 놀이, 그림책 읽기, 악기, 공놀이 등 무엇이든 좋고, 한 달씩 순번이나 한두 주씩 교대도 가능합니다. 활동 자료는 상의 후 준비해 드립니다.
  - 유치부 예배(주일 11시, 2층)와 청소년부 오후 모임(1:00-2:30)의 보조교사도 찾습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
  - 문의: 오종향 목사, 최은총 전도사

PEOPLE OF NEW CITY

교회를 섬기는 분들
행복한 제직회 · 2026년 하반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것,
제안하고 싶은 것,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각 팀장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2026년 제직 명단 (임기 1년)**

  권사: 김영혜, 옥진복, 정민재

  집사: 강자은,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혜영, 노영숙, 문영식, 박태원, 배지은, 손이숙, 우문주, 원종욱, 유은희, 은원철, 이수민 (가나다 순)

- **함께 섬기는 봉사자**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박민수, 윤재연 (예배 안내)

  이성은 (찬양팀 찬양 인도)

- **섬김의 팀**

  ▢ **환경개선팀** (팀장 강자은 · 김영혜, 우문주)
  예배당과 교회 공간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 **구제전도팀** (팀장 원종욱 · 김영혜, 손이숙, 옥진복, 정민재)
  새가족 초청집회와 연말 이웃 섬김을 준비합니다.

  ▢ **새가족안내팀** (팀장 유은희 · 배지은, 이수민)
  주일마다 환영하고, 새가족과 자리·식사를 함께합니다.

  ▢ **재정팀** (팀장 김재강 · 은원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기·연간 보고합니다.

  ▢ **찬양팀** (팀장 김성배 · 노영숙, 문영식, 은원철, 이성은)
  찬양, 음향, 방송 송출, 미디어를 맡습니다.

  ▢ **자비사역팀** (팀장 김혜영 · 김순영, 김현지, 박태원)
  유니시드, 시선오브·꽃피는 봄날, 쪽방촌 이웃을 섬깁니다.

  준비 중: 중보기도팀, 독서클럽팀, 다음세대교육팀, 소셜미디어팀. 마음이 움직이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 **예배 안내위원**

  첫째 주 윤재연, 이수민 · 둘째 주 옥진복, 손이숙
  셋째 주 배지은, 유은희 · 넷째 주 박민수
  다섯째 주 지원 요망

- **주일학교 섬김**

  유은희 (유치부 교사)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 **소그룹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김순영, 김현지, 유은희 조장은 새로운 조가 만들어질 때를 준비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FOR YOU

당신을 위한 자리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셨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이 자리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복음 한 스푼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저마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벌어진 틈을 십자가로 친히 메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위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한 기도

지금 아프거나, 지쳤거나, 낙심 중이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주보를 손에 든 한 사람,
그 마음의 무거움을 아시오니 친히 안아 주시고 쉼을 주소서."

뉴시티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하시면 예배 후에
오종향 목사나 새가족안내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뉴시티교회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FRIDAY WORSHIP

금요예배 순서

저녁 7:30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잊을 수 없는 은혜 주 예수 내 참 소망	최은총 전도사
합심 기도		
성경 봉독	미가 7:18 - 19	다함께 기립
설　　교	하나님의 사랑 (5) 깊은 바다 (죄책의 문제)	오종향 목사
찬양과 기도		
축　　도		
개인 기도 후 귀가		

뉴시티교회에 처음 오셨나요?

뉴시티교회는 나이의 벽을 허물고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 교회를 찾는 분, 위로와 쉼이 필요한 분, 교회가 처음이거나 오랜만인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주일 11:00 · 금요 19:30
3면에서 자세히

함께 나누기
예배 후 소그룹 나눔과 점심 친교
6면에서 자세히

함께 섬기기
마음이 움직이는
섬김의 팀에 참여
10면에서 자세히

궁금한 것은 예배당 입구의 새가족안내팀이나 오종향 목사에게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주일예배 11:00, 금요예배 19:30 · 서울 서초구 명달로 46 서신상가 (2층 친교실, 3층 예배실)
소그룹 모임: 주일 오후 13:00 또는 금요일 10:30
주일학교: 유치부 11:00 · 초등부 10:00 · 청소년부 13:00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오시는 길